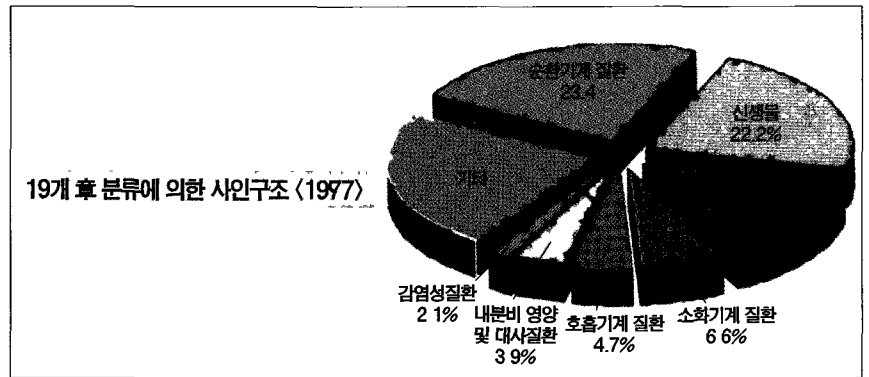




통 계청이 발표한 97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사망한 사람은 총 240,862 명으로 이를 인구 10만명당으로 보면 518.3명이 된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는 인구 10만명당 589.9명, 여자는 456.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3배 정도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망원인으로 살펴보면 모든 질병 및 사고를 해부학적 부위 및 발생원인으로 분류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19개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고혈압성 질환, 중풍, 협심증, 동맥 경화증 등을 총칭하는 순환기계질환이 전체사망자중 23.4%로 첫번째를 차지한다. 두번째로는 각종 암을 포함하는 신생물이 22.2%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운수·추락·익사·화재·자살 등의 각종 사고사로 인한 사망이 13.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이 세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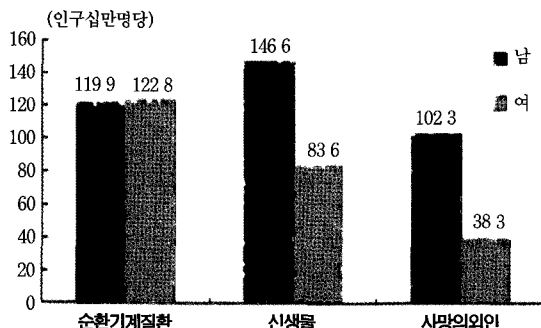
한국인 40대 사망원인 1위 肝 질환

- 97년 사망원인 통계로 본 한국인과 간

류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0년전인 1988년 사망구조와 비교해 볼 때 순환기계질환은 30.0%에서 23.4%로, 신생물은 18.2%에서 22.2%, 각종 사고사는 13.8%에서 13.6%로 변하여 순환기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 반면 각종암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3대사인별 성별사망률



암에 의한 사망률 계속 증가

순환기계 질환사망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이는 고혈압 질병자

체가 감소하기보다는 고혈압에 진단을 조기에 받아 질병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망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각종암에 대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수준의 발달로 암 진단기술의 발전은 가져왔지만 암 치료수준은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환경공해, 음주, 흡연, 나쁜 식생활 등의 요인으로 암 발생 자체의 증가에 의한 요인도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각종암에 의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46.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순환기계 질환 사망 119.9명, 사고사망이 102.3명 순인데 비해 여자는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이 122.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 83.6명, 사고사 38.3명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빈도와 사회활동이 여성보다 많아 암 및 사고 사망이 여성보다 높으며 여자는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8세 많아 고령인구의 높은 비중으로 만성병 성격인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개별적 질병명으로 분류한 103개 중분류로 들어가 살펴보면 구체적인 성별 사망원인 특성이 더 뚜렷해 진다.

이미 총사망률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약 1.3배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평균치 수준보다 월등히 차이 나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간암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남자 32.3명, 여자 10.0명으로 약 3배가 더 높고 간경화, 알콜성 지방간 등을 포함하는 각종 간질환(간암 제외)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남자 41.9명, 여자 10.2명으로 약 4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에 폐암사망도 인구 10만명당 남자 30.5명, 여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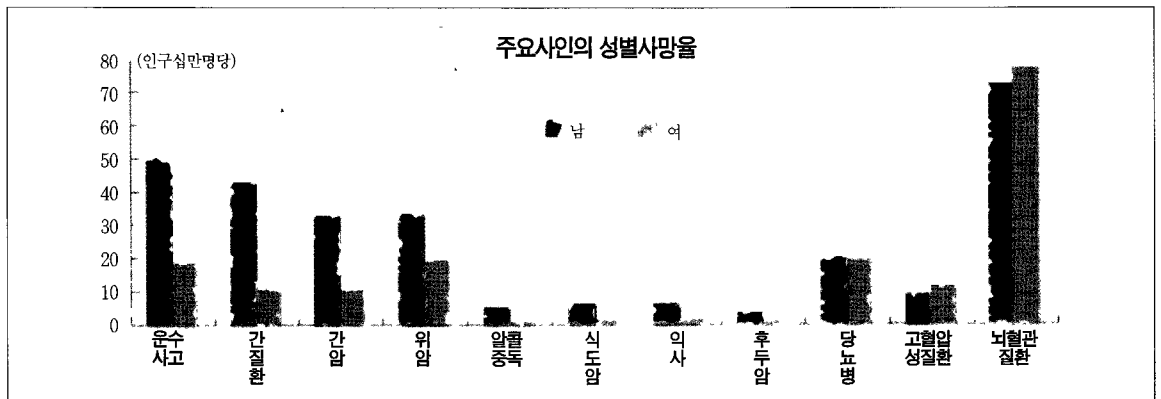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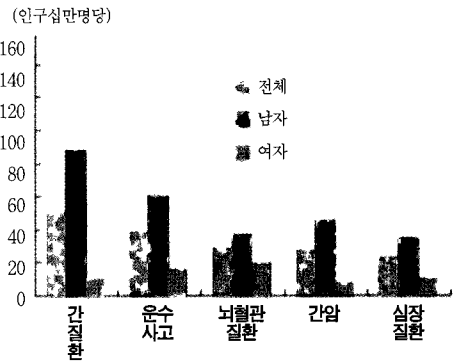
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정도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흡연이 폐암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흡연의 성별 차이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남자 간암사망률 여자의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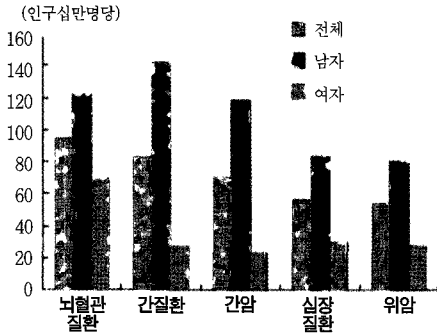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역학적으로 동구권 및 극동 아시아지역권과 더불어 간암 및 간질환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인데 그 이유는 아직 확실히 설명 되지는 않지만 높은 간염 보균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간염항원 양성자 비중이 1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는 전 연령층에서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남자 40대 사망원인으로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높는데 같은 연령층의 여자보다는 무려 9배가 높아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높은 사망

40대의 주요사인별 사망률



40대의 주요사인별 사망률



를 현상의 주범임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중 세계보건통계연감에 사망원인 통계가 수록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21개국과의 사망률 비교 중 간질환 사망률은 우리나라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41.0명으로 헝가리의 125.0명 보다는 낮으나 아일랜드(4.3명), 노르웨이(5.9명), 네델란드(6.0명), 스웨덴(8.2명) 등 다른 비교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10.2명을 보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간질환 사망률은 비교국 중 중간 수준이다. 간암사망률은 남자 인구 10만명당 32.3명으로 사망원인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 사망률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간질환 중 만성 간염은 20~50% 정도가 간경변으로 전환되고 간경변은 간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양약이나 한약을 가릴것도 없이 각종 약제들과 강장식품의 남용이나 오용 뿐 아니라 몸에 좋다면 가리지 않는 음식물 과잉섭취로 인한 간의 해독작용에 부담주

는 행위는 만성 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요즈음 중국으로 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농작물에 농약 잔류량과 함께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이 간암을 직접 일으키기도 한다.

약품·음식물의 과잉섭취는 간에 부담

삶의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유, 행복, 경제적 여유, 욕망의 성취, 의무적인 근로 활동과 사회적 활동성, 건강 쾌적감 등 6개 요소를 지적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의무적인 활동성과 건강 쾌적감은 치료의학적 차원에서 크게 좌우되는 요소인데 이에 더불어 경제적 여유에 힘입어 생수, 무공해 건강식품의 선호현상은 바람직한 일 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테미너에 좋다면, 무병장수의 양약 이라면 독극물조차 보약으로 먹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음은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하려는 건강탐닉증의 면면을 우려하게 한다. 건강을 얻으려다가 잃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물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요법과 천연식품 및 약제의 장기간 복용은 누적된 부작용이 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으므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간암 및 간질환 사망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건강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